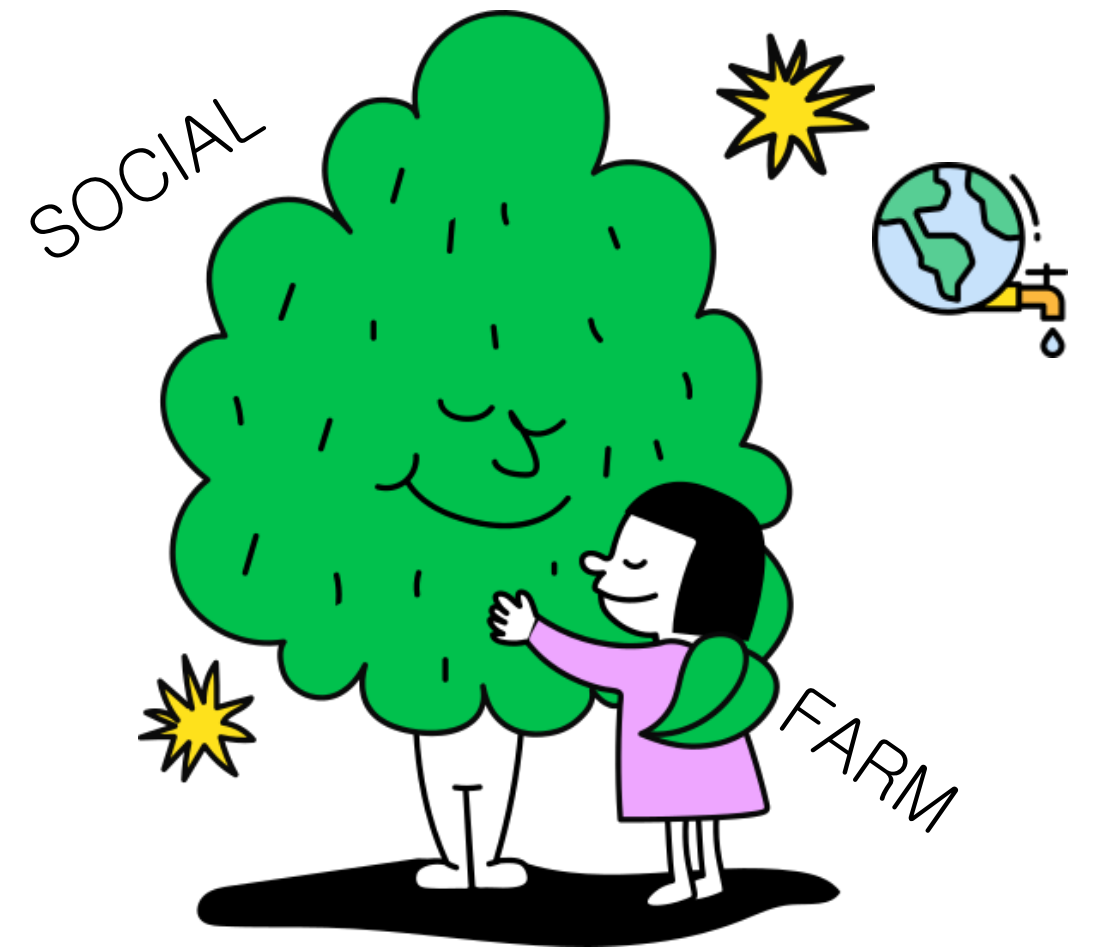


농의 가치 확장과 지속 가능성

(부제 : 돌봄과 농업의 결합)



발표자 : 이효진(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농업과 돌봄의 결합,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배경 : 농촌에서 사는 삶, 특히 사회적 약자에겐 다중의 고통

시장 실패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시장 논리 작동
- 음식점, 세탁소, 대중교통 등 일상적 생활 서비스 사업체 퇴출
- 농촌 지역 상업 기반 약화

공동체 실패

- 가족과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호혜적 관계 약화
- 과거 주민의 삶을 지탱했던 상호부조 체계 붕괴
- 공동체 기반 돌봄 시스템 부재

공공 실패

- 재정 효율성 논리에 따른 공공 서비스 축소
- 교육, 의료, 복지 등 기본 서비스 감소
-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위협

미충족 수요

- '영농의 불리함'과 '생활의 불편함' 동시 발생
- 일상에서 필요한 복지 인프라 부족
- 농촌 주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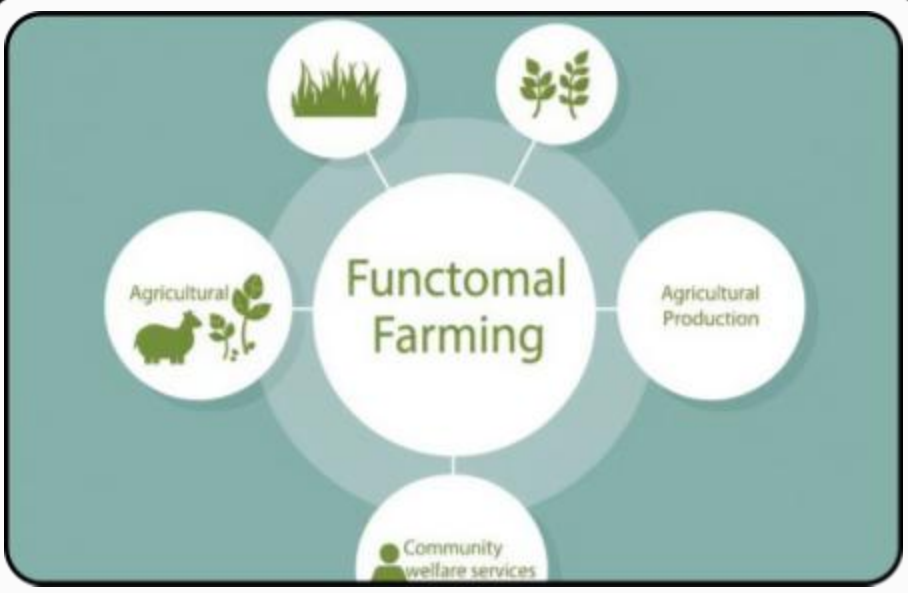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시스템(농장 기업과 농부의 사회적 환경을 포함)과 돌봄 부문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업과 돌봄의 조합 (Di Iacovo, O'Connor, 2009)

1. 사회적 농업의 개념
 2. 사회적 농업의 목적
 3. 사회적 농업의 유형
 4. 사회적 농업의 효과
 5. 사회적 농업의 과제

법적 정의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업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치유, 교육, 고용 서비스 제공



다기능 농업

- 농민에게 소득원 다변화 제공
- 농업에 새로운 가치 부여
- 농업을 통한 돌봄



사람 중심 활동

-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벗어남
- 공동체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

사례① 정신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 목표 대상**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들의 재활 및 소속감 증진.
- 핵심 활동** 흙을 만지고 생명을 돌보는 자연농법 기반의 농작업 참여.
- 활동 성과** 증상 완화, 삶의 의욕 부여, '할 일이 있다'는 소속감 형성.
- 공동체 지향**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향.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배우는' '꼬뮤네(Commune)' 형태를 꿈꿈.
- 재정 지속성** 농장 매출 외에, 수익을 내는 식당('함께하는 상')과 카페,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재정을 다각화하여 안정성 확보.

사례② 발달 장애인의 돌봄과 일자리



[농업회사법인 (주)콩세알]

핵심 가치

나눔, 공생, 자립의 지혜. 돌봄과 복지적 측면을 농업에 구현.

주요 대상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고용/교육

정신장애인 2명을 4대 보험 가입된 정식 농부로 고용 (묘목 생산).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달팽이 농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정 기반

한살림 연계 두부 가공업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 농업 외 수익 구조 다변화.

지역 연계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 지향.

사례③ 청년의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및 정착



[항꾸네협동조합]

- 목표/지향** 농사 품앗이, 적정 기술 중시, 귀농 청년들에게 기댈 언덕 제공.
- 대상** 농촌 생활을 희망하는 귀농 청년들.
- 주요 활동** 청년 공동주택(공유주택) 제공, 농사 및 농촌 생활 정착 기술 교육, 함께하는 품앗이 농사 (공동 못자리).
- 성과** 5년간 28명 지원 중 **17명 지역 정착** (조합원 절반이 청년).
- 경제 활동** 청년들은 농사 외 '텃밭 학교' 강사 알바나 통계 알바 등 농사에 지장 없는 겸업을 통해 소득 보충.
- 지역 영향** 청년들이 농민회, 환경연대 등 지역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며 **곡성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음.**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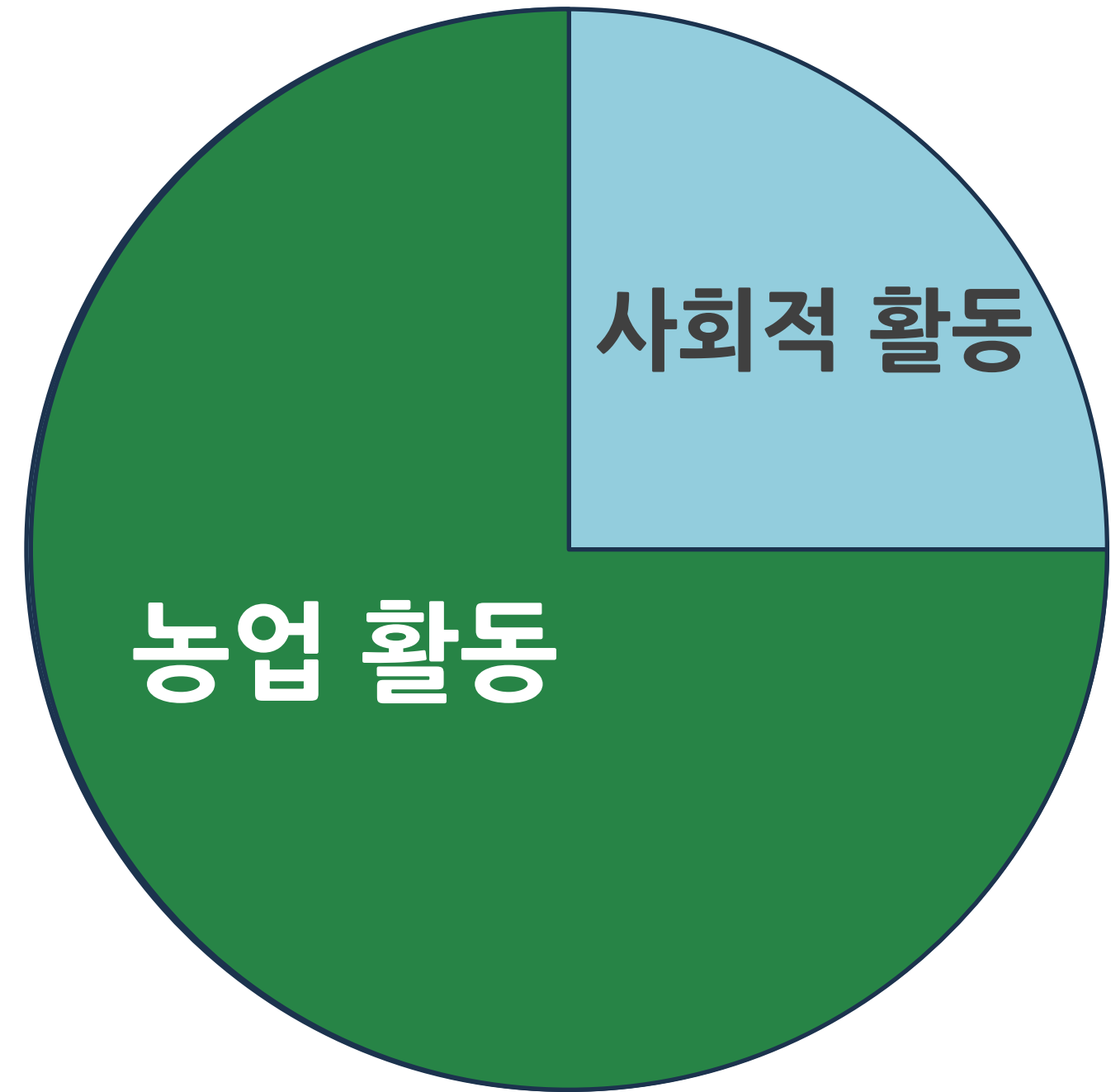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 농업과 보조금에 대해서



- **경제적 가치의 손실 보전**

농업 생산 기능의 일부를 사회적 기능에 할당하게 되면, 생산성 감소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2018년~)



지원액
최대 6,000 만원



지원기간
최대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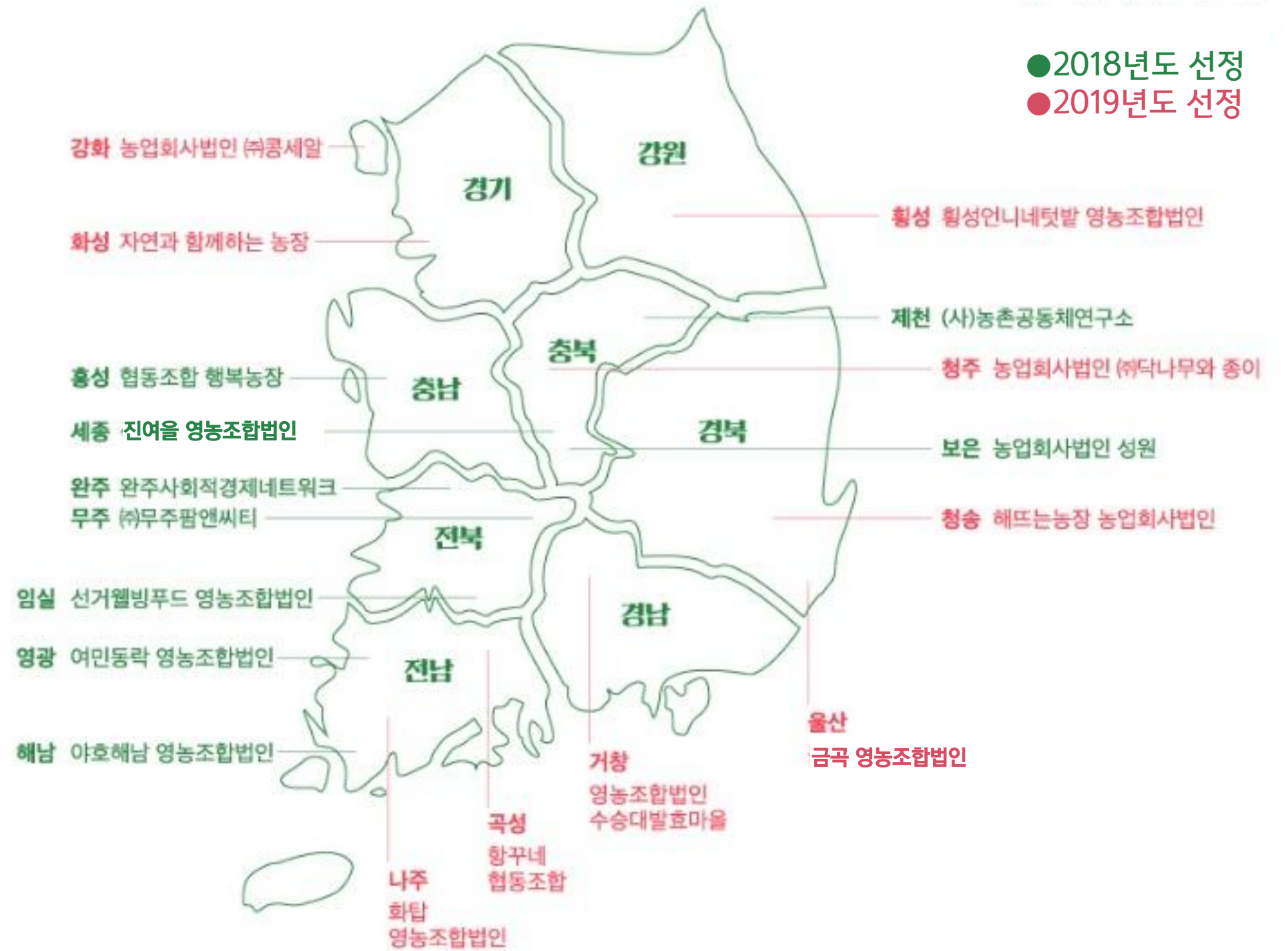


지원기관
18 개소

• (목적) 사회적 농장(=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농업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 홍보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원 내용) 사회적 농장 18개소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선비

• 6천만원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보조금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조직들

5년 보조금 지원 이후 활동 지속 상태 → 18개 대상 중 17개 농장 조사

▶ 사회적 농업 활동 지속 농장(13개소)

구분	해당 농장
• 사회적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	2개소
•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사회적 농업 활동이 단체 목적에 부합)	8개소
•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유지	2개소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유지	1개소

▶ 활동 지속하지 못하는 농장(4개소)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 경제적으로 지속 어려움
▪ 주사업 중단에 따른 활동 중단
▪ 농장 부지 공사로 중단
▪ 다른 사업에 집중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는 곳들의 특징 유형① 사회적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



“우리 법인은 원래 태생 자체가 ‘농촌 공동체의 재생과 복원’ 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욕구 조사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소득을 얻는 것에 욕구가 강했어요.

혼자 살아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필요하니까요. 어르신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은 욕구 또한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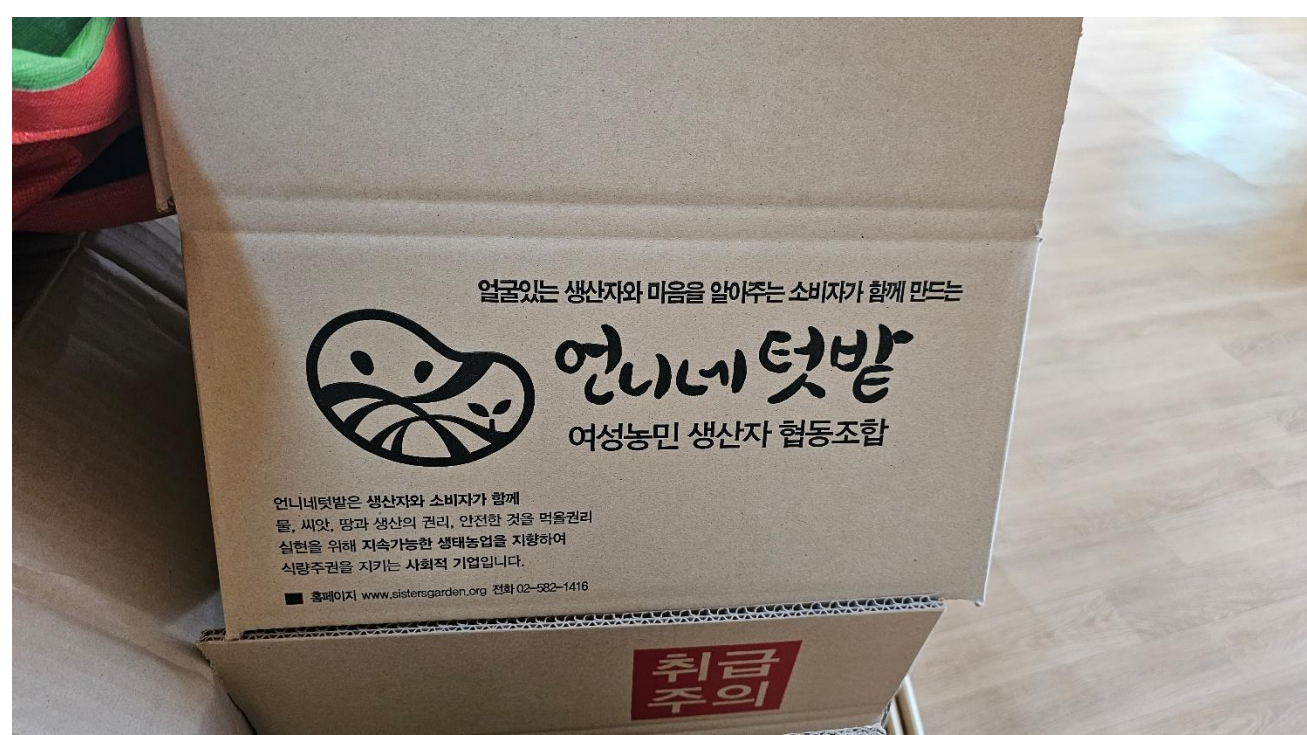
유형②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체(사회적 농업 활동이 단체 목적에 부합)



“2009년도에 제철꾸러미라고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무제초제 이상 농법으로 토종 씨앗도 지키고 다양한 품종으로 농사 지어보자.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하게 지속적 돈이 들어오는 구조와 여성 농민들이 통장을 갖도록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횡성공동체가 2013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교육을 받고서 2014년도에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유형③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맺어진 관계 유지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5년 동안 장애 가족들과 텃밭 활동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활동을 해 왔는데, 보조금 종료 시점이 되자, 참여 엄마들이 “사회적 농업을 내년도 또 해요. 안 해요” 하고 묻는데, 예산이 끊겨서 못한다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텃밭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이야기를 마치며...

농업과 돌봄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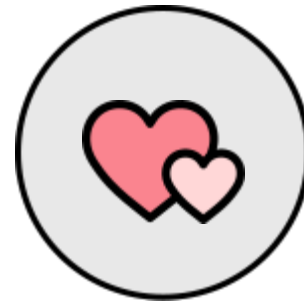
결론 : 농업과 돌봄, 실천 조직의 정체성과 지역 사회 연결망 구축이 핵심

공동체 지향 조직



- 돌봄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출발
- 사회적 관계 지향 조직체

연결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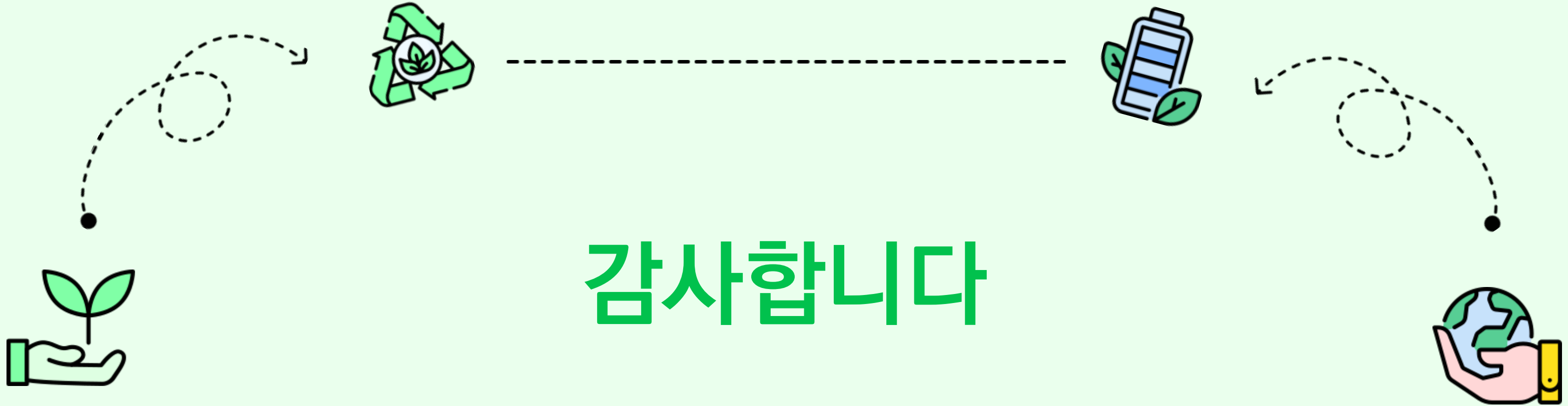
- 개별 주체들을 묶는 네트워크
- 지역사회 내 자원 공유
-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지역사회 협치 구조



- 지역(농장)과 행정(공공)의 협력
- 지역 상황에 맞는 돌봄 모델
- 지역사회 활력의 계기

“(어려운 농촌 환경 속에서) 우리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 보자”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 지침
- 김정섭(2022).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법제 발전 방향
- 이효진 외 3인(2025). 사회적 농업 지속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대산농촌재단
- 정민철(2025). 농업 생산 활동과 돌봄·교육 활동의 균형, 농촌돌봄농장 중급교육 자료집